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10.(목) 16:00 10. 11.(금) 조간	배포	2024. 10. 10.(목) 09:00

식품기업·협회 만나 농업과 상생협력 방안 모색

-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10일(목)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하여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단장: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오리온, 콜마비앤에이치, 해태가루비, 씨제이(CJ)제일제당, 씨제이(CJ)프레시웨이 등 9개 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기업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상생 제품 개발, 수입 농산물 국산 대체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올해 시범 구축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과 표준약정서 등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업은 고품질의 농산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라면서,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식품기업과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1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